

체가 확대되고, 변화하고 있다. 최근 베트남의 경우, 전후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인간관과 윤리관을 다른 작품이 베트남작가동맹 최고상을 수상하면서 12만 부가 팔렸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문학 수용, 독자 수준 높일 수 있는 기회

최근 2~3년간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 소설의 인기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과도한 판권 경쟁에 지친 국내 출판사들이 기존의 인기 작가보다는 신인작가 발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저작권 에이전시의 한 일본문학 담당자는 "일본 문단의 작가들이 실시간으로 국내에 소개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중국 소설의 출간과 아직 활발하진 않지만 꾸준히 소개되고 있는 동아시아 소설들은 분명 우리 해외 문학 시장의 새로운 모색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소개되는 동아시아 문학작품이 단기간에 국내 출판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 안목으로 이같은 노력이 지속될 때, 타 문화에 대한 균형 감각을 길러주고 국내 독자들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분명 유의미한 현상이다. 이는 나아가 독자들의 문화적 인식 기반의 확대는 국내 문학계에도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학을 비롯해 동아시아 국가간의 문화적 교류 활발해지면 국내 문학의 해외 진출에도 든든한 발판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

한국 젊은 작가의 단편집 일본서 출간, '한국 젊은 소설' 새바람 기대

글_ 이주연 기자

국내 문학 출판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 소설의 열풍이 일본 내에서도 한국의 젊은 소설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 것일까. 최근 한국의 작가 7인의 단편집 《지금 우리 곁에 누가 있는 걸까》가 일본 사쿠린샤(작品社) 출판사에서 발간되었다.

이는 기존의 해외 번역 소설이 한국적 정서를 대변하는 장편 소설 위주였던 것과는 달리 개인의 정서를 담은 젊은 작가들의 단편집이라는 점에서 고무적 현상이다. 동아시아 문학이 일본 소설 일색이던 우리의 문학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처럼 한국의 '젊은 소설'이 일본 소설 시장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문학번역원(원장 유지관)이 번역 및 출판을 지원한 이번 작품집에는 1960년대 출생한 작가들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다. 표제적인 신경숙의 《지금 우리 곁에 누가 있는 걸까》를 비롯해 하성란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조경란 《동시에》, 윤대녕 《많은 별들이 한곳으로 흘러갔다》 등 모두 8편이 실려 있는 이 작품집을 통해 일본 독자들은 한국 젊은 작가들의 다양한 소설 기법과 재능을 읽을 수 있다.

작품집의 해설을 쓴 일본 작가 나카자와 케이는 "사소설(私小説)적인 경향이 지배적인 일본 문학에 비해 한국 문학에는 인간의 아름다운 감정, 즉 정(情)을 느끼고 싶어 하는 욕구가 확실히 남아있다. 도시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던한 생활을 묘사하면서도 전통적 시가(詩歌)의 세계에 있는 서정성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평했다.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일본어 번역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임지원 씨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일본 소설에 비해서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한 번이라도 한국 도서를 내본 출판사에서 젊은 작가들의 한국 소설을 다시 찾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정책적으로 꾸준한 번역 사업과 시장의 확대는 순환적이다. 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양질의 도서를 좋은 번역으로 소개해야 하고, 그것이 다시 독자의 수요를 만들어 한국 소설을 찾는 출판 시장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쿠린샤 출판사는 이번 소설집의 출간을 계기로 "한국의 역량 있는 젊은 작가들을 일본 독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도 꾸준히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대중문화의 큰 틀에서 일본 내 '한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 문학'에 대한 일본 독자들의 수요는 드물었던 만큼 이번에 소개되는 한국의 젊은 소설이, 자극적 감각과 세련된 감수성에 길들여진 일본의 젊은 독자들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

